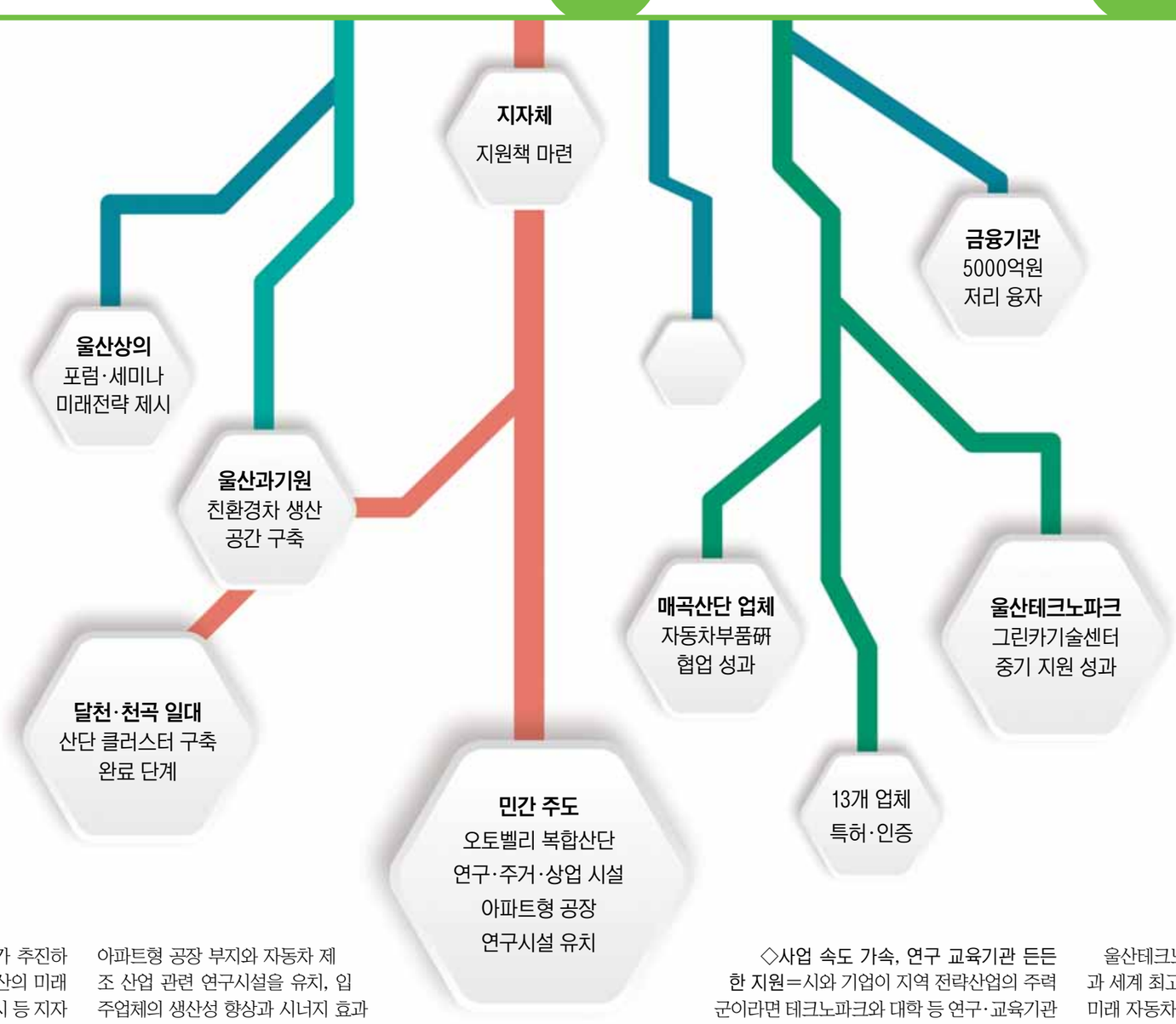
민·관 혼연일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속도 낸다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8〉

제2부-국내 자동차 생산 1위 울산을 가다

❸기업·연구·교육기관의 지원

'산업수도' 울산이 명예 회복 노리며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 등 타지역의 도전이 매섭고 세계경제 또한 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위상 회복을 위해 나아가기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지역 경제를 살릴 전략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울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부품업체, 지원 연구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 사실상 울산의 이러한 모습은 세계 최대 자동차공장이 있고 인구의 30% 가량이 자동차산업과 관련을 갖고 있는 도시이면서도 위기에 빠져 있는 울산 지역경제의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끌고 지역 기업이 민다=광주가 추진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밸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울산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체는 울산시 등 지자체와 부품산업을 중심으로한 민간업체이다. 지자체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기업은 이를 실현하는 주력군인셈이다.

지역 상공업체를 이끌고 있는 울산상의의 노력은 헌신적이다. 울산상의는 "만약 자동차 산업마저 흔들린다면 울산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며 "주력산업의 부진과 대내외 경기불황의 여파로 침체에 빠진 울산경제를 합심해 다시 회복시키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올해 슬로건을 '울산의 미래, 다시 도약하자!'로 세울 정도로 비장함이 묻어난다.

이 외에도 울산상의는 수시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가하면 현대차 등 주력기업의 파업 등 노동쟁위와 관련해서도 쓴소리와 지지를 당당하게 표명할 정도다.

현대차와 인접한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들의 자구책 마련은 사활이 걸린만큼 적극적이다.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정도다.

울산시 북구 천곡동 일원에 제조시설은 물론 연구시설과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한 곳에 입지하는 산업단지로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복합산업단지 방식으로 눈길을 끈다. 오토밸리 복합산단으로 불리는 이 산단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의 관련업종 입지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부지와 자동차 제조 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단이 조성되면 달천·천곡 일대에만 총 100만㎡가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돼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이 완료단계에 이른다.

또 입주업체 80%이상이 현대차에 부품을 납부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인 매곡산단의 경우도 지역 경제의 뿌리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사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교류도 활발하고 산단 내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소와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 전경.

◇사업 속도 가속, 연구 교육기관 든든한 지원=시와 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의 주력군이라면 테크노파크와 대학 등 연구·교육기관은 든든한 지원군이다.

울산의 경우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설립, 매곡산단 등 자동차 부품소재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 오토밸리로 건설 등 광역시 승격 직후부터 추진한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모든 것을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테크노파크는 미래 자동차 산업 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의 거점 역할을 할 그린카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돌입한다. 226억원이 투입된 그린카기술센터에는 현재 연구기관과 관련기업 총 15곳의 입주가 확정돼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울산테크노파크의 노력은 울산시 북구와 업무 협약을 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사업'의 성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은 13개 자동차 부품업체 모두가 기술 특허 및 인증(국외특허 1, 국외인증 1, 국내특허 11개)을 획득하는 등 불과 1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또 울산테크노파크의 자체 분석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신장 및 수출액 등을 포함해 60억원의 이익을 봤고, 9명을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산업기술과 세계 최고의 IT강국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최대의 자동차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연구기관과 기업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연구·교육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역할도 기대해볼 만하다. 울산시와 UNIST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 부품 R&BD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5년간 총 150억원을 투자 받아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와 전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 등과 협약을 맺고 미래 전략 사업의 조력군 역할을 자처하는 지역 은행의 태도 또한 본 받을만하다.

경남은행은 울산시와 함께 주력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발전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산업, 조선해양기자재산업 등 주력산업과 관련한 기업에 대해 총 5000억원 한도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2.5%까지 우대해 금융 지원한다.

/울산=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